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Boxship owners say now is the time to buy — before prices rise

용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선박의 가격이 올라갈 기미가 보이자 컨테이너선주사들의 중고선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보도됨. Costamare사는 최근 5,600~8,800TEU급 선박 수 척을 구매하기 위해 매물을 찾고 있다고 밝혔으며, Lomar는 최근 3,500TEU급 선박 (2006년 건조)을 구매했다고 밝혔다고 보도됨. 구매자들은 Mid-Size 컨테이너선 신조물량의 부족으로 수급의 타이트해졌다고 밝힘. (TradeWinds)

China sets ambitious 2025 target for boost in shale gas output

중국이 14차 5개년 개발계획에 따라 셰일(shale) 가스 생산 목표치를 높였으나, 산업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목표치 설정이 지나치게 높다고("overly ambitious") 보도됨. 지난 13차 5개년 개발계획에서는 2020년말까지 연 생산능력을 30BCM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으나, 14차에서는 목표치를 50~80BCM으로 상향했다고 보도됨. (Upstream)

CMB forges first commercial shipbuilding contract for HHIC in six years

벨기에의 선사 Compagnie Maritime Belge(CMB)가 한진중공업에 미완성된 LR2탱커 2척에 대해 공사를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됨. 현재 2척의 미완성된 선박은 한진중공업 필리핀 야드에 18개월째 대기 중이며, 선사는 공사중인 선체를 한국으로 옮겨서 공사를 마무리 지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Transocean set to lay off drillship crew in December

해양시추서비스업체 Transocean이 110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대상 직원들은 시추선 'Deepwater Asgard'관련 인력이며 11월에 끝나는 시추계약 이후 추가적인 일감확보에 실패하자 해고가 불가피해졌다고 보도됨. 현재 시추선은 미국 멕시코만 인근에서 작업중이며 일일 운임은 24만달러로 알려짐. (Upstream)

NH PE-오퍼스 등 한진중 예비입찰 참여

한진중공업 예비입찰에 신탁사와 사모펀드(PEF)운용사 등 다수의 원매자가 참여했다고 보도됨. 입찰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매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도됨. 예비입찰에는 KDBI-케이스톤파트너스, APC PE, NH PE-오퍼스 PE, 한국토지신탁 등 4곳이 응찰했다고 보도됨. 원매자측의 실사 등을 거쳐 12월 본입찰을 실시할 전망이다(선박뉴스)

현대일렉트릭, 반월·시화산단에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

현대일렉트릭이 국내 최대 산업단지인 경기 반월·시화산단에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보도됨.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K-뉴딜'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은 스마트그린산단은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바꾸는 것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올해 7개 산단에 785억원을 투입해 10개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고 알려짐. (이데일리)